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모임:** 1부 예배 후에 각 공동체장, 인도자 모임이 아동부실 맞은편 홀에서 있습니다.

② **체육대회:** 공동체별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③ **단기선교:** 11월 중에 있을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 위원회 모임이 8월 21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분 참여 바랍니다.

④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⑤ **음악교실:** 기간: 2011년 8월 19일 ~ 10월 7일 (매주 금요일)
장소: 교회 Chapel실 수업과목: 노래부르기, 피아노, 플룻, 챔버문의: 940-3381 휴대폰: 021 215 8779(txt) 교회사무실: 369-5077 등록비: \$30, 랫슨비 무료 (선착순, 교회에 직접 등록)

⑥ **월례회:** 부부 선교회,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집지사역)

▷ 중국: 김강한 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8월 교회일지

미니 체육대회 :

8월 27일 (토요일)

이삭줍기주일:

8월 28일 (주일)

공동체주관 수요예배:

8월 31일 (수요일)

교우 소식

이사: 이동술 (박은경)집사 36B Ellis Ave, Mt. Roskill 전화 통일

새로 등록하신 분

전화번호

주소

공동체 인도자

이연화 집사 (조하영) 021-0295-1237 Unit 525 Queen St. City 베트남 스스로

8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 안내	주방 봉사
7일	최재학	김성희	박수현	최재학/노은숙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4일	이광희	김정민	박영태	최재학/노은숙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1일	정관영	원미경	박은경	최재학/노은숙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8일	현석호	장연식	유승재	최재학/노은숙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섭형제와 영, 육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2. 기도와 말씀묵상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한인교회들이 침체된 뉴질랜드의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4. 김유정, 김강한 선교사를 비롯한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사역의 열정과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8월 7일

주보 13권 32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미가 6:6,8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7장	다함께
*성서교독	45. 시편 103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42장 (340장)	다함께
대표기도	최재학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12-1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기도에 힘쓰니라	이태한목사
찬송	361장 (48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다음주 기도: 정관영장로	8월 21일: 이광희장로
건축헌금	지난주 헌금: \$10.00	총계: \$597,957.19

주일2부예배

오후3시	다함께	
찬양	청년찬양단	김성희집사
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열왕기하 20:1-6	인도자
설교	여호와의 말씀 사이에	심창진목사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김정민집사

성서교독 45.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정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이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을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면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다함께	
찬양	수요찬양단	박수현집사
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사사기 1:22-36	인도자
설교	타협하는 이스라엘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52장 (390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김영옥권사
다음 수요기도: 박병태집사

갈보리 칼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마음의 서운함을 대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던 목사님이 며칠 전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입니다. 80년대 말 전도사 시절 그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교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흔히, 저는 목사님을 알아도 그분은 저를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작년 10월 한국에 갔을 때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프신 몸인데도 조용기 목사님과 최경주 골프 선수를 소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강의 솔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가 명설교라서, 강의가 명강의라서 더 서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닮고 알아가려는 헌신에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은 8월호 생명의 삶에 나온, 어쩌면 목사님의 살아생전 지면을 통한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하여 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분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故 하용조 목사

성경의 모든 말씀을 녹여 한 구절로 만든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 이니다. ‘세상’이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불화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사랑을 확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이 죽은 사랑,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복을 모두 누리며,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나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태한 목사